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4일 목요일 음 12월 23일 (조금)

기상정보

대체로 흐림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6°C, 낮 최고기온은 7~11°C로 전망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오후, and precipitation percentages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07:28), 달뜨기 (11:30), and other weather-related times.

Table with 2 columns: 주간예보 (주간예보) and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생활·안전 기상정보) and health/safety related weather info.

월드뉴스

수백억 횡령한 중국 희대의 '가짜 부처'

10년간 여신도들 농락하기도

"10년 동안 2억 위안(한화 345억원)이나 횡령하고 여신도들을 농락했다니..."



중국 '가짜 부처' 사건 주인공 왕성푸.

종교 활동이 사실상 통제된 중국에서 '살아있는 부처' 행세를 하던 가짜 스님의 염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중국 사회에 던진 충격파가 크다.

않고 계속됐다.

3월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에서는 3000여 명의 제자까지 거느린 가짜 스님 왕성푸(王興夫) 사건이 퍼지면서 중국인들의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

불교 교리 중 남녀 간 화합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 여신도 10여 명을 성폭행한 것이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자신이 고안해 냈다는 '밀교 기공법'을 토대로 '고대 요가 학술응용 연구소' 등을 차려 수 강생들의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왕성푸는 가족 문제를 찾아온 여신도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내려주겠다며 성폭행했으며 피해 여신도들은 후환이 두려워 반항하지 못했고 일부는 이후 정신 질환까지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 왕성푸는 살아있는 부처 행세로 10년간 2억 위안의 재물을 긁어 모았다.

중국 경찰 측은 "진실을 말하기 두려워하는 여성들도 고려하면 그에게 성폭행당한 여자들만 최소 10명이다"고 전했다.

왕성푸는 약행은 여기서 멈추지

연합뉴스

한리일보 Jeju Halla Park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목요일론



이성웅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 블루에 대한 생각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인 감염으로 인한 건강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직접 감염이 아니라도 간접적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힘들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조어가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블루(Corona Blue)의 사전적 의미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성된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의 변화가 개인의 우울감 혹은 무기력증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에서 이뤄지고 집에선 휴식을 했다. 집이라는 공간은 재충전만의 공간이 아닌 활동을 겸하는 공간이 됐다. 가족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나 TV프로그램을 찾아 함께 공유하면 가족들 간의 소통이 증가할 것이다.

오피라인 회의에서 온라인 회의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분위기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대면 회의의 불편함에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코로나와 관련된 많은 신

코로나19로 인해 '집'의 기능이 변화하게 됐다. 집이라는 공간은 사회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 하는 공간, 그리고 다음의 활동을 준비하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활동은 외

다음은 직장에서의 변화와 코로나 블루 예방에 대한 제언이다. 최근 직장 내 가장 큰 변화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의 전환이다. 부서간 업무협약이나 회의들이

열린마당

인정있고 안전한 설맞이를 위해



김금자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장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이 다가온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세상에서 맞이하는 설은 반갑고도 안타깝다. 예전 같으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날 기대에 생각만해도 반가움과 설렘이 가득했지만 이제껏 힘겹게 지켜왔던 코로나19 대응에 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될까하는 안타까움으로 마음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도민과 상생하는 신탁



이강현 신탁중앙회 제주지부

제주지역 신탁은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둬 자산 4조 281억원, 당기순이익 169억원을 달성했고, 배당금 및 기부금 등으로 약 86억원을 조합원에게 환원했다.

인정있고 안전한 설맞이를 위해

설 제수용품 구입하고, 청정제주의 신선함을 담은 건강먹거리 '서귀포인정' 상품으로 소중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이번 출시한 적금은 제주지역에 있는 시중은행 적금 평균 금리(1.8%)와 비교했을 때 1만1687명의 도민에게 약 7억7000만원이 더 환원된다. 해당 상품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고 고통받는 많은 도민의 가계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2021년 제주지역 신탁의 경영 슬로건은 'T.O.P' (together, ownership, passion)이다. 조합의 상생 정신, 주의의식, 열정을 바탕으로 최고의 금융기관이 되자는 의미이다. 신탁은 제주지역 최고의 금융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들에 대한 환원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신축년은 흰 소띠의 해로 '상서로운 기운이 뿜뿜 일어나는 해'라고 한다. 상서롭다는 말은 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는 뜻인데, 올 한해는 제주도민 모두 어려움을 훌훌 털고 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주지역 29개 신탁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또한 제주도 내 신탁은 올해 1월에 자산 4조원 달성을 기념해 제주도민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제주도민사랑적금'을 출시했다.

해당 적금은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월 최소 10만원~최대 50만원을 최장 1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제주도민사랑적금'은 도내 모든 신탁이 취급해 출시 하루만에 2568건이 개설됐고,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반영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Jeju Halla Park products, featuring '신상품' (New Products) and '감귤묘목 분양' (Citrus Seedling Distribution) with various varieti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Hanlim Jeongmyo (한림종묘) featuring '감귤묘목' (Citrus Seedlings) and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Urajo-seung 3-year contract seedling) with a list of varieti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Gamgul Jeongmyo (감귤종묘분양) featuring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2021 Spring Distribution of Seedlings) and '자원종묘' (Jaryeon Jeongmyo) with a list of varieti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Gamgul Jeongmyo (감귤묘) featuring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All Varieties Citrus (Seedling) Distribution) and '유라 (1~5년생)' (Ura (1-5 year old)) with a list of varieties and prices.